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j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66,10-14ㄷ
 [화답송] 시편 66(65),1-3 7ㄴ.4-5.6-7 16과 20 (◎ 1)



(후렴) 온 세상 아, 하느님 께 환호 하 여 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하옵니다."◎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룬 놀라운 그 위업을. ◎

[제 2 독서] 갈라 6,14-18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 환호송] 콜로 3,15.16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10,1-12.17-20(또는 10,1-9)

[성가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340] 봉헌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어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정진 안토니오 이정진 안토니오 강무강 이종현, 목영순	이영애 레지나 한서희 데레사 강호영 안드레아 이경자 올리안나
생미사	봉헌
이영애 레지나/ 이조앤 그레이스 이영애 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이조앤 그레이스, 이지훈 아녜스, 이지연 안나레지나 박혜화 도미니카 박동길, 김경안 (가정을 위해) 김기례 레지나 (래유를 위해)	가족 이정현 헬레나 한서희 데레사 익명 익명 윤 루시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7월3일	이지훈 아녜스	김규현 프란치스코	이경자 올리안나	이경자 올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지연 안젤라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7월10일	백이백 아오스딩	유대건 미카엘	최진영 수산나	최진영 수산나	이영혜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7.1 에스텔 7.3 토마스 7.5 대건안드레아 7.6 마리아고레띠
- 7.8 라이문도 7.11 베네딕토 7.15 보나벤투라 7.20 엘리야
- 7.22 마리아막달레나 7.23 비르지타 7.24 크리스티나
- 7.25 야고보 7.26 요아킴, 안나 7.29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
- 7.31 이냐시오

● 울뜨레아 동북부지구 모임있습니다.

- 일 시: 7월 4일 (월)
- 장 소: 데마레스트 성 요셉 성당
- 문 의: 김미화 마리 클레어 간사

● 청년미사 있습니다.

- 일 시: 7월 9일 (토)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 시: 9월 11일
- 장 소: 뉴튼 수도원
- 신 청: 각 단체장에게 참가신청
-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당뒷편에 있는 바구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유아세례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 이정주 (소화데레사) 김동희 (헬레나)
-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 고중호 (마태오) 이병국 (요한)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박명순 (모니카)
- 이경희 (미카엘라)

[2022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0,1-12.17-20 <또는 10,1-9>)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흔 두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돌아와 기뻐서 들뜬 마음으로 선교 성공담을 늘어 놓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성패를 따져 선교의 업적에 도취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하느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독서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업적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던 백성이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은총을 베푸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독서 갈라티아서는 '마지막 권고와 축복'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오로가 말했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뤄진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랑할 기쁨의 원천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러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만 하옵니다." -화답송 참조 -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기도와 지구의 운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황량하게 만들었다고 난리들입니다. 비행기가 날지 못하고 배도 뜨지 못해서 인간 활동 범위가 제한되다보니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려 분주합니다. 심지어 박쥐에게까지 덤터기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은 없습니다. 즉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고 지배자란 독선적인 태도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성찰은 조금의 기미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원인은 대자연 앞에서 쪽도 못 쓰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의 허세입니다. 그래서 격노한 지구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빌붙어서 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인간은 지구 위에 붙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자기들끼리 이념적·종교적 이유로 살상극을 벌이고 지구의 심장부에서 원폭실험을 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지구 입장에서 가만있을 리 만무합니다. 해충을 박멸하듯이 인간을 박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지구에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도 해충들이 없어질 때까지 농약을 쳐대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살길은 무엇인가? 인간이 지구에 이로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답은 이미 아주 오래전 성경, 불경 등에 기록돼왔습니다. 인간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것일 뿐.

"애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네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집회서 37,27-31)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한, 코로나19 사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탐욕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나 묵상이건 대부분은 우리가 보다 높은 자아나 영적인 근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귀한 시간 안에서 나를 꽃피우는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영장류의 뇌가 발달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